

월요논단



현해남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

자전거 길의 환상과 환상의 경계

'환상'과 '환장'은 선 하나('·') 차이이다. '환상'에 선만 그으면 '환장'이 되기 때문이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환상이 있다.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주 환상자전거 길을 완주하고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것이다. 자전거 애호가들은 에베레스트 등반을 위해 히말라야에 가는 것처럼 제주에 온다. 제주 환상자전거 길은 성지와도 같다. 눈으로 보는 경치만 환상적이 아니라 바퀴가 구르는 길도 환상적이어야 한다. 자전거는 200여 년 전에 프랑스에

서 처음 만들어졌다. 나무로 바퀴와 몸체를 만들고 그 위에 올라타서 두 발로 땅을 차면서 앞으로 나가는 자전거다. 50년이 지나서야 페달이 발명되고 처음으로 자전거 대회가 열렸다. 공기를 주입하는 튜브는 수의사가 아들을 위해 만들었다. 110년 넘게 프랑스에서는 매년 7월이 되면 3주간 투르 드 프랑스가 열린다. 파리 서쪽의 한 도시에서 세계 반대방향으로 4000km를 달려 프랑스를 일주한 뒤에 다시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입성한다. 제주에 오는 라이더들도 제주에 도착하면 용두암 인증센터로 시작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라이딩을 시작한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제주바다는 환상 중의 환상이다. 한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북한강, 금강, 동해안 자전거 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 확 뿜리는 시원한 환상이다. 모

두 탄성을 지른다. 제주 환상 자전거 길을 감탄한다. 그러나 점점 탄식이 흘러나온다. 곳곳에 보도블록에 파란 선으로 표시만 해 놓은 길, 자전거 한 대도 지날 수 없는 좁은 폭, 인도에 자전거와 관광객이 뒤엉키는 구간, 주차장인지 자전거 길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지역, 모래와 자갈이 쌓여 있어서 넘어지기 쉬운 길 등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길이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길은 부끄러워서 자전거 길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한다. 육지 자전거 길은 노란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양복 2차선이다. 폭도 넓다. 차가 주행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측통행해야 한다. 활주로처럼 바닥이 아주 평평하고 깨끗하다. 2-3000km를 달려도 펑크 한번 나지 않는다. 위험한 지역은 반드시 블라드를 세워 차량 진입을 막는다. 그러나 제주 환상자전거 길에는 모래와 자갈이 쌓여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철사 등이 있어서 특하면 펑크가 난다. 제수 없으면 하루에 세 번 펑크가 나기도 한다. 후진국형 자전거 길이다. 선만 그어 놓고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의 인도는 투수형 아스팔트나 시멘트 길로 바뀌어야 한다. 블록으로 인도를 만드는 것은 아스팔트를 다지는 롤러가 없어서 사람 손으로 인도를 만들 때의 얘기다. 신도시에는 모두 아스팔트, 시멘트로 인도를 만든다. 자전거 타는 주부,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자전거 길을 잘 만들면 자연히 차 대신에 자전거를 타기 때문이다. 10월에는 자전거로 100km를 달리며 제주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2019 제주 그란폰도'가 열린다.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전거 길을 육지 자전거 길처럼 잘 만들고 잘 관리하는 것이다.

열린마당 삶에 많은 보물을 주는 개발공사 '청년초가'



박아름 청년초가 전 입주자

작년 7월, 청년초가가 처음 생겼을 때 입주한 입주자 중 한 명으로, 서울에서 취업을 하게 돼 올 6월을 마지막으로 청년초가를 떠나게 됐다. 청년초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청년들의 맞춤형 주거를 위해 기획해 마련한 사업으로, 제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제주청년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 '청년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집'이라는 뜻인 청년초가는 제주의 고유 주거방식이었던 초가(草家)가 있던 시절의 공동체성 회복과 제주청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보금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년초가에서 많은 것을 이뤘다. 마음 맞는 사람이 없을 것만 같던 제주에서 많은 토래를 만나고 사귀게 돼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특히 저렴한 월세 덕에 집세 걱정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생겨난 여유 비용은 운동과 취미생활에 많이 투자할 수 있었다. 월세가 저렴하고 월세에 비해 집도 무척이나 넓고 좋았다는 건 청년초가의 엄청난 메리트였다고 생각한다. 청년초가에 입주해 사는 지난 1년 동안 얻은 보물은 내면의 활력이다. 이전에 비해 바깥활동을 많이 하게 됐으며,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전보다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됐다. 청년초가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것을 기대해 본다. 청년초가가 지금보다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일면식이 없던 입주자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거나 서로 오해가 생겨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됐고 서로 노력하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운영진과 청년초가 입주자간에도 보다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에서의 생활 중 청년초가를 만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다. 좋은 추억과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해 준 제주개발공사에 감사드리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17개 시도지사 직무평가 조사서 전국 3위

원 지사 1년 평가 최상위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민선 7기 출범이후 1년간 도민들로부터 받은 긍정 평가가 평균 53.6%로 17개 시도지사 중 최상위권.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 발표한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조사에 대한 평균지지를 분석 결과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에 이어 3위를 차지. 제7회 지방선거에서 51.7%의 득표율을 기록한 원 지사는 작년 7월 첫번째 조사에서 최고치인 61.1%로 시작해 9개월 후인 올해 4월 조사에서 49.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상윤기자

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대폭 확대.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가 시술비 부담으로 임신시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난임시술지원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고대로지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4·3특별법 연내 처리 위해 총력전 펼쳐야

제주 4·3특별법 개정은 문제인 대령의 대선 공약인데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한 제주도와 4·3단체들이 4·3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발의한지 1년 7개월째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오영훈 국회의원이 2017년 12월 19일 대표 발의했으나 전혀 진전이 안돼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마냥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있습니다. 최근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발의 공공

4월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3월에는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4·3단체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만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입니다. 특히 4·3유족회는 4·3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행동을 구성하고 전국적인 목소리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현재 4·3특별법은 국회에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오는 12월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 임기에 처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4월 총선 정국으로 돌입하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4·3특별법 처리를 위해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나가야 합니다.

혼란만 키우고 있는 IB 교육과정 도입

이석문 제주자치도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제 바칼로레아(IB) DP(Diploma Programme, 고교 과정) 도입이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 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 100년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뤄질 것이 라고 평가했지만 한국어화 작업을 위한 협력자 체질이 늦어지면서 올해 하반기 중에 도내 읍·면 고등학교 중 1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IBDP는 스위스에 설립된 비영리 교육기관 IBO에서 운영하는 2년간의 국제공인 대학입학 자격 취득과정을 말합니다. 탐구 중심의 학생 주도형 교육과 과목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의 교육 과정입니다. IBDP를 도입한 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과목, 2·3학년 때 선택과목 중 선택과목을 IBDP 과목으로 대체해 이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IBDP를 이수

하는 학생들은 우리나라 고교 졸업자격과 IBDP 2개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IBDP 한국어화 작업을 위한 협력자 체질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벌써 세번이나 연기됐습니다. 여기에 국내 대학 입학 가능 여부도 쟁점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IBDP를 이수한 학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수시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제주자치도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교 교육과정은 대학 입학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주도민들 중 69%가 IBDP 도입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로 일방적인 홍보를 할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학교, 교육계가 함께 이해하고 만 들어야 합니다. 이석문 교육감만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고 김덕하(재능전업사 대표) 어머니 경주이씨 정봉 (미리아·향년 96세)께서 서기 2019년 7월 5일 13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7월 8일(월) ▶발인일시: 2019년 7월 9일(화)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아흔아홉골선영

부고 박영희(오동등 농장) 어머니 상주 향씨 정순 (독립유공자녀·향년 93세)께서 서기 2019년 7월 6일 23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7월 8일(월) ▶발인일시: 2019년 7월 9일(화)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 함림선영

부고 김창식(지역영) 아버지 김해김공 병기 (국가유공자·前 건강관리협회 부이사관·향년 91세)께서 서기 2019년 7월 7일 03시 5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7월 8일(월) ▶발인일시: 2019년 7월 9일(화)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장 지: 해안동 선영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양씨 복순 (향년 8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7월 8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공 봉동 (향년 8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7월 8일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관공 코팅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소날건업 내소날 FRP 페인트 총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